

KOREA

세계 속 대한민국

2



위치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와 132도 사이, 북위 33도와 43도 사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북태평양 북서쪽에 위치한 반도 국가이다. 또한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육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대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우리 국토의 지리적 잠재력은 매우 크다. 우리 국토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거대한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으로, 교역과 물류의 중심이며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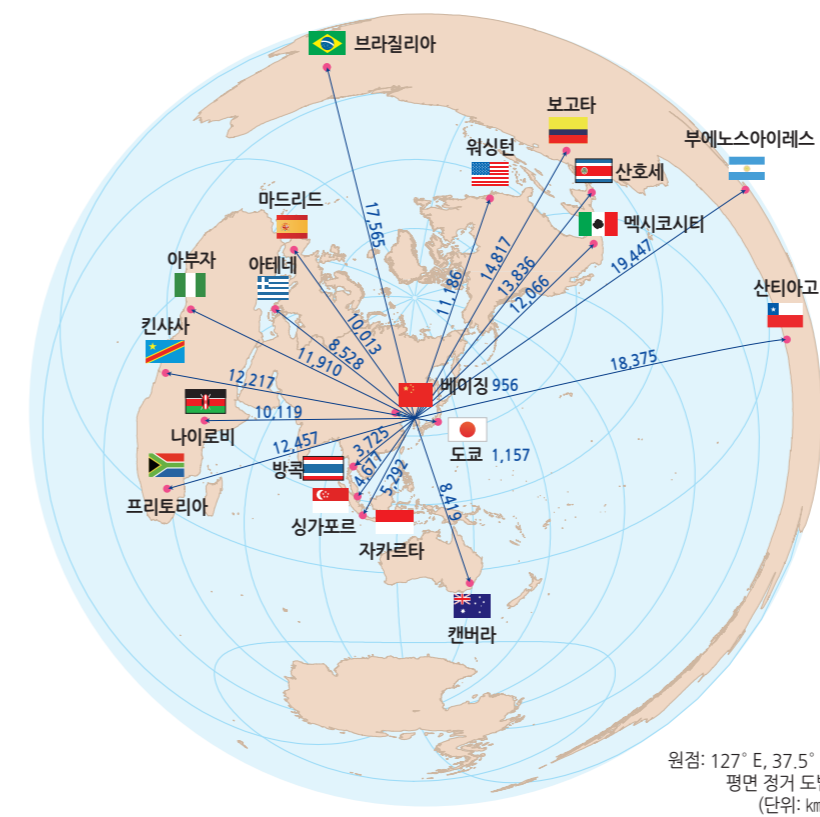
주변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다. 이미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국민 총생산 합계는 미국 및 유럽 연합과 비슷하며, 지역 내 교역 및 경제적인 의존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000km 내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40여 개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상에 위치한 국가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알제리, 그리스, 터키, 이라크, 이란,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의 지역들은 북반구 온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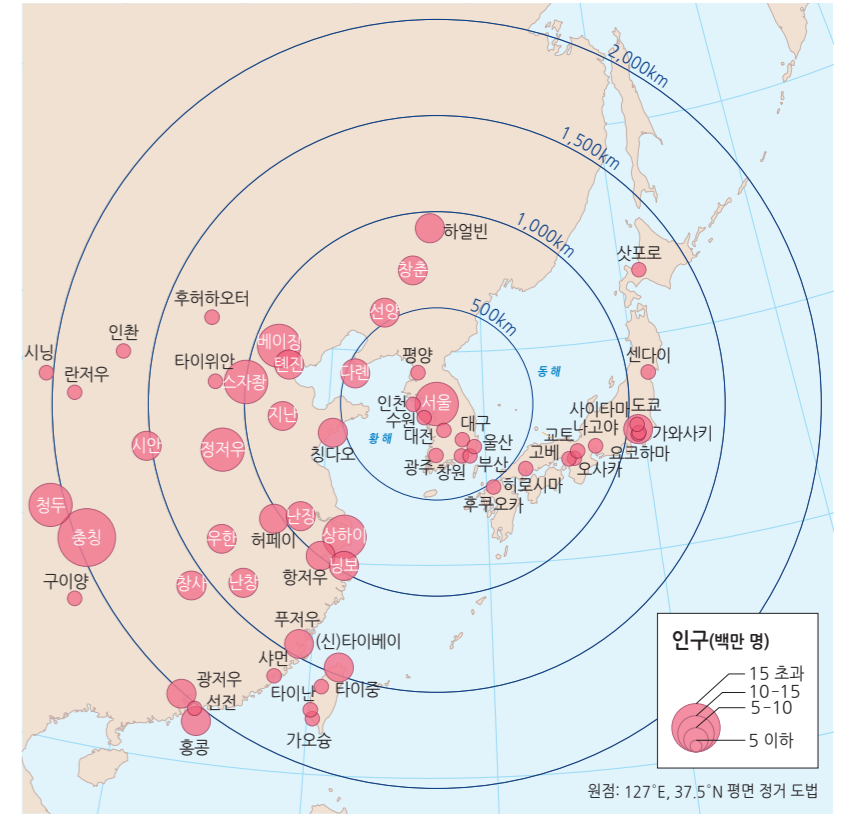
에 속해 있으나, 대륙과 해양의 위치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자연 경관의 차이도 크다. 경도는 표준시와 관련이 있다. 우리 국토는 모양이 남북으로 긴 형태로 동경 135도의 단일한 표준시를 사용하며, 그리니치 표준시보다 9시간이 빠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도상에 위치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지만, 같은 표준시를 쓰는 국가는 일본, 동티모르, 러시아 일부 등이다.

* 북한은 2015년부터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표준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 시간이 남한보다 30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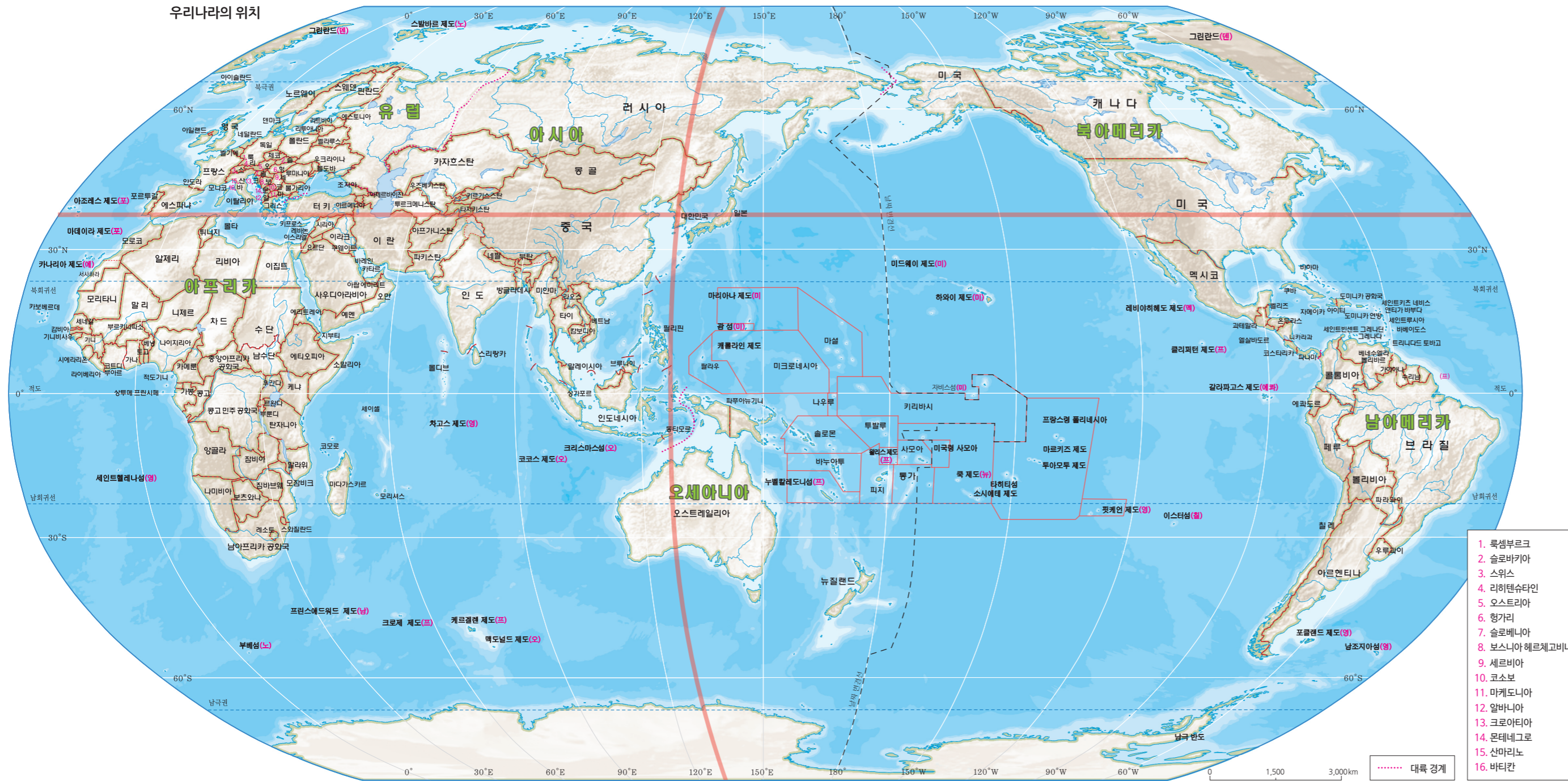
서울에서 각국의 수도까지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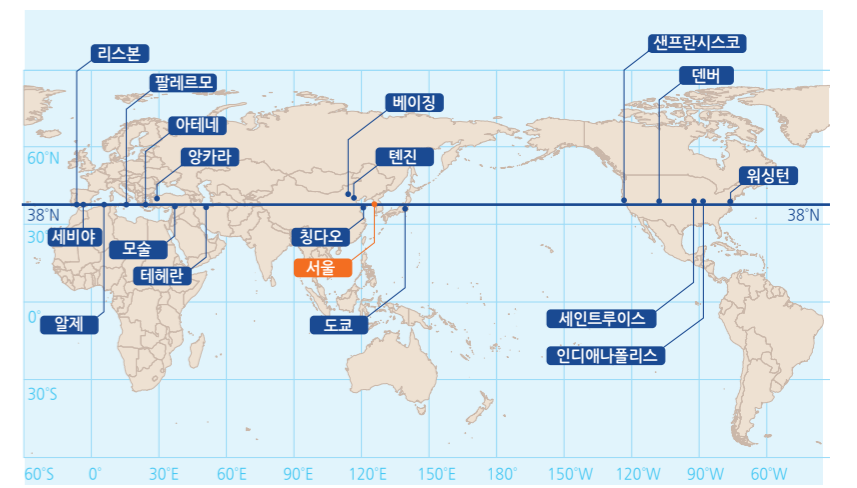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동아시아 대도시



우리나라의 위치



서울과 비슷한 위도상의 도시



표준 시간대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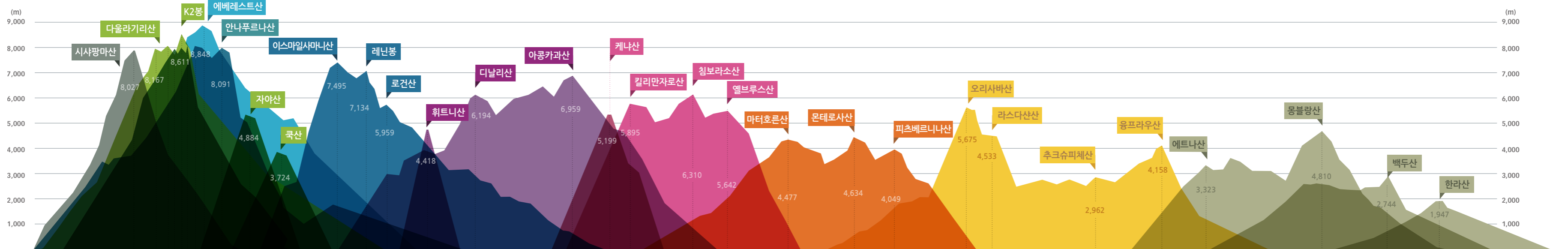
높은 산과 산맥은 기후와 삶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3,000m 이상의 세계적인 산맥들은 유라시아에서는 위도 방향으로, 남북아메리카에서는 경도 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이러한 산맥의 방향은 주로 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

에베레스트(8,848m), K2(8,611m), 안나푸르나(8,091m) 등 높은 산들을 품고 있는 히말라야산맥은 파키스탄 북부에서 네팔, 부탄까지 연결되어 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맥은 지질학적으로 가장 최근에 형성된 산맥이다. 그 밖에 유럽 최대 산맥인 알프스산맥,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우랄산맥, 세계에서 가장 긴 안데스산맥,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에서 시작하여 서부를 따라 멕시코까지 연결되는 로키산맥이 대표적인 산맥이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산이 위치해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2,744m의 백두산이며, 백두산 정상에는 직경 3,550m의 큰 칼데라호(천지)가 있다. 또한 백두산은 중국과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원지이며, 오랫동안 민족의 영산으로 사랑받아 왔다. 옛사람들은 한반도의 모든 산이 백두산의 산줄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인 1,947m의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해 있다. 산 정상의 분화구에는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있으며, 약 370여 개의 오름과 독특한 용암 동굴을 품고 있다. 또한 난대림부터 고산 식물대까지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나타난다.



주요 산의 높이



UN(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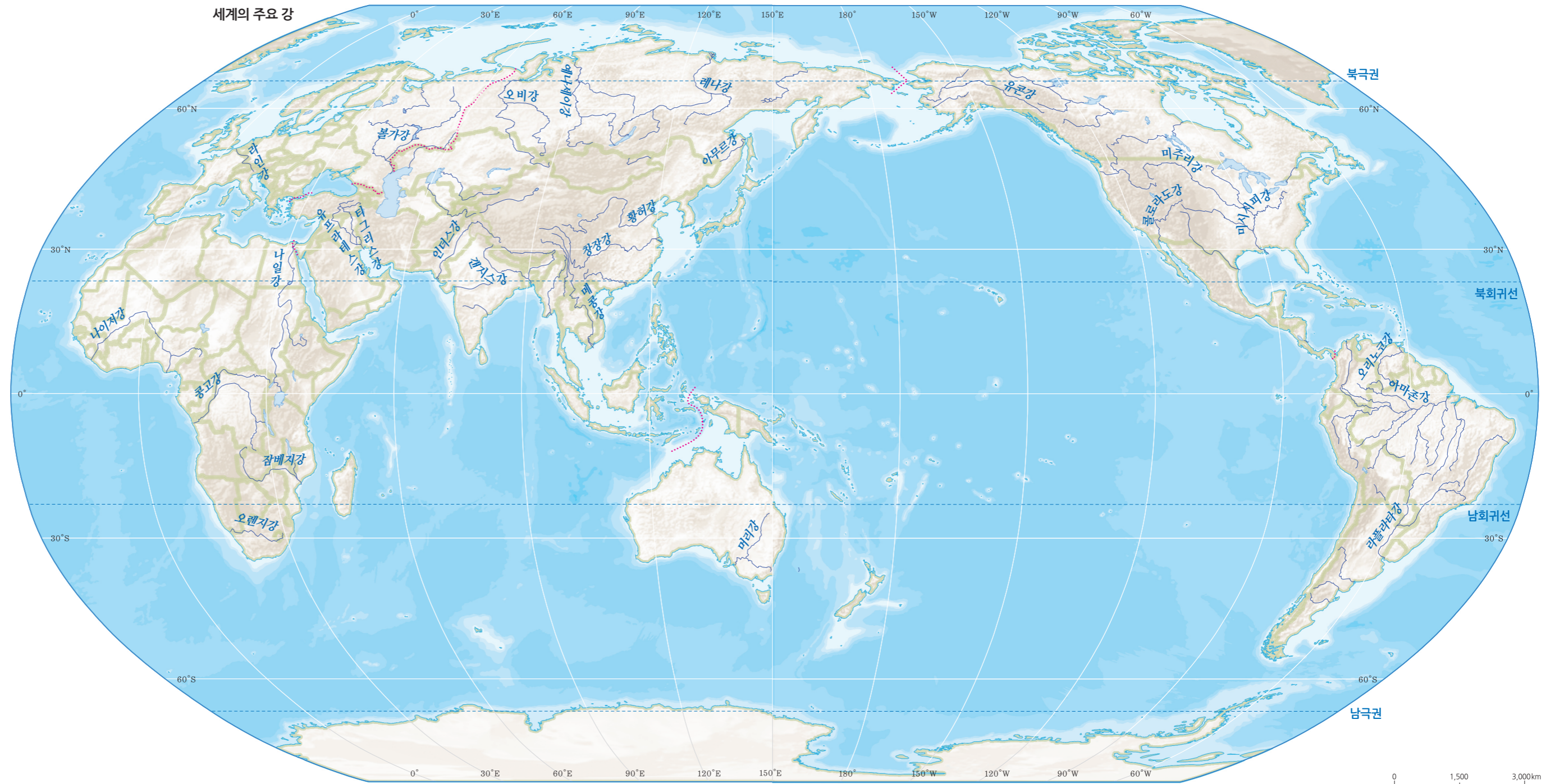
강

강이 지구의 지표 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025%이다. 하지만 이 강을 중심으로 인류는 문명을 이루었고, 여전히 강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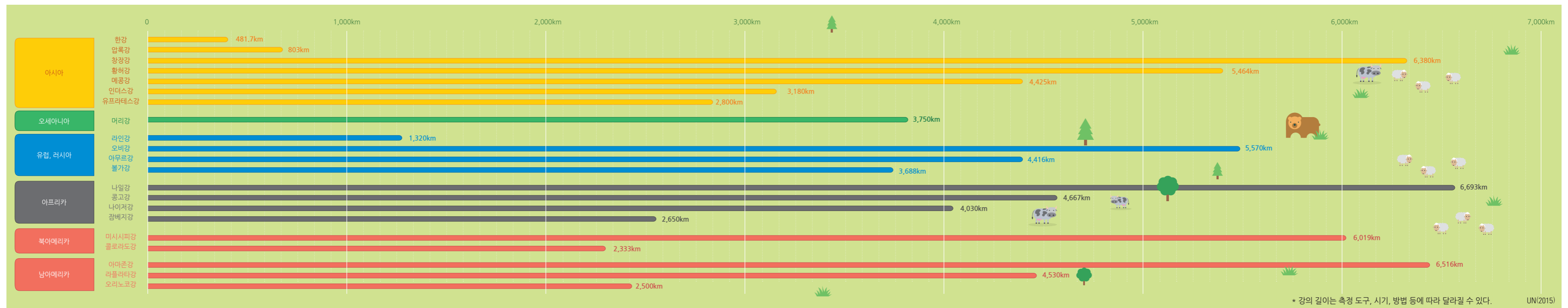
산에서 시작되어 바다로 유입되는 강은 침식·운반·퇴적 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형과 평야를 만든다. 유역 면적과 물의 양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은 아마존강이다. 아마존강은 페루 남부 안데스산맥에서 시작하여 브라질을 가로질러 대서양까지 이어진 강으로, 전 세계 강물의 20%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아프리카 빅토리아호에서 시작하여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나일강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창장강과 실트 퇴적물을 운반하는 황허강,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메콩강,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만든 서아시아의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남아시아의 인더스강과 갠지스강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이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그랜드 캐니언을 만든 콜로라도강, 서유럽의 젓줄로 스위스에서 네덜란드까지 이어지는 라인강, 중앙아프리카의 콩고강, 1년 중 약 200일 정도 얼어 있는 러시아의 오비강, 오스트레일리아의 머리강 또한 대표적인 강이다.

우리나라 강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상 계수가 세계적인 강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에 수자원의 이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홍수가 잦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황해로 흐르는 압록강이다.



주요 강의 길이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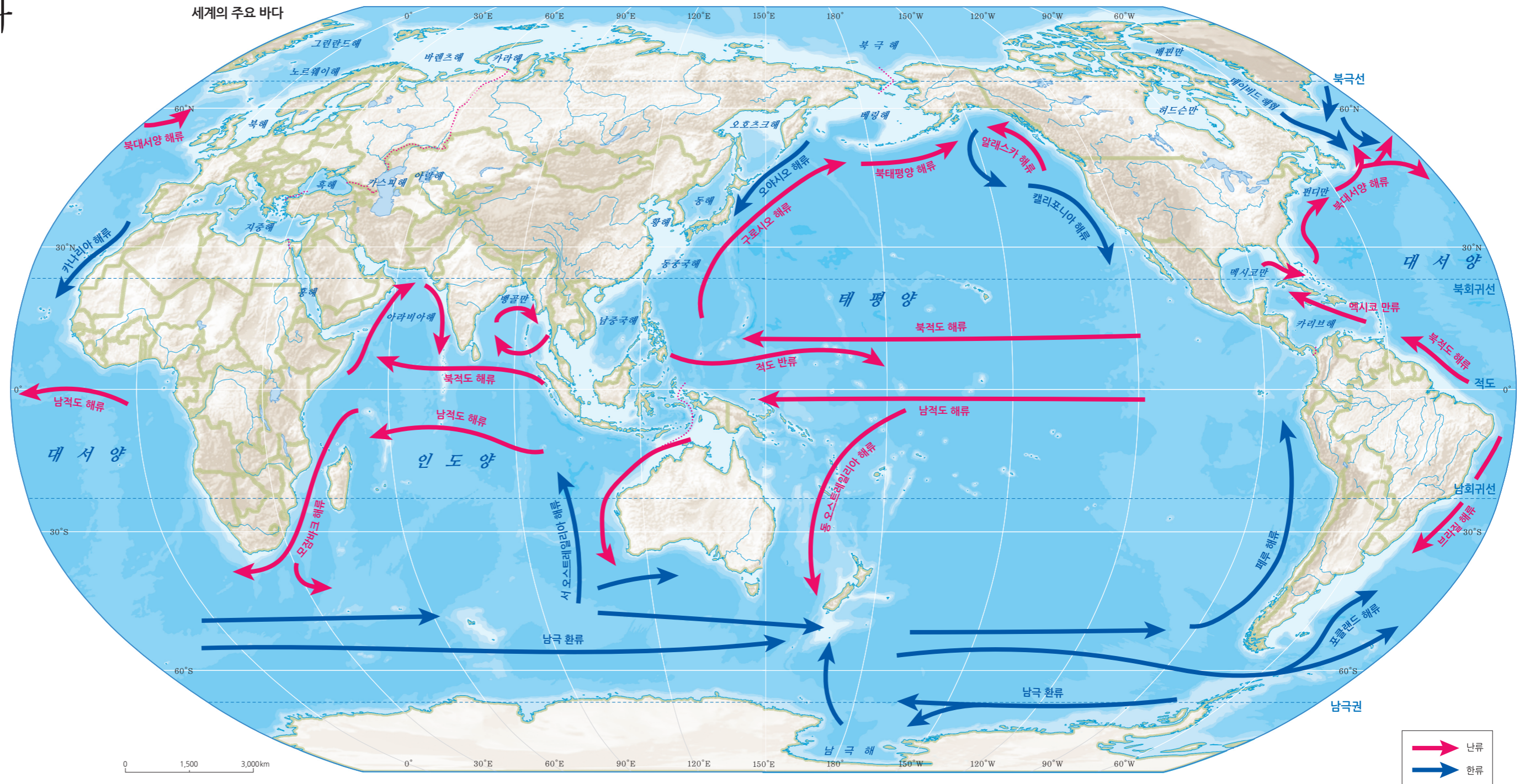
지구 표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복잡한 작용에 의해 해류라는 일정한 움직임을 만든다. 해류는 보통 적도 지역에서 극지역으로는 난류가, 극지역에서 적도 지역으로는 한류가 흐른다. 해류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원 모양을 그리며 순환한다.

대양은 크게 북극해, 남극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으로 나뉘며, 대양 주변에 작은 바다와 만이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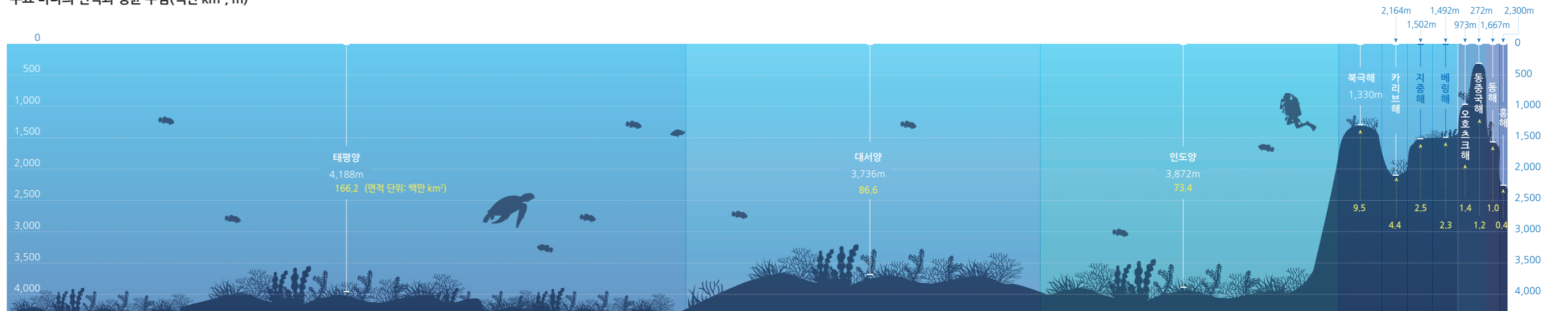
대서양 북서부 캐나다의 펀디만은 세계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곳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카리브해에 있다. 영국 동부의 북해, 터키 북부의 흑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내해인 지중해, 아라비아반도의 홍해, 태평양 북쪽 알류산 열도에 면한 베링해, 오호츠크해 등이 대표적인 바다이다.

황해는 세계에서 조차가 큰 지역으로,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다. 동해는 대양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수와 순환 시스템 등 대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대양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며 세계 기후 변화 연구에서 중요한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주요 바다의 면적과 평균 수심(백만 km², m)



* 바다의 면적 및 수심은 측정 도구, 시기,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UN(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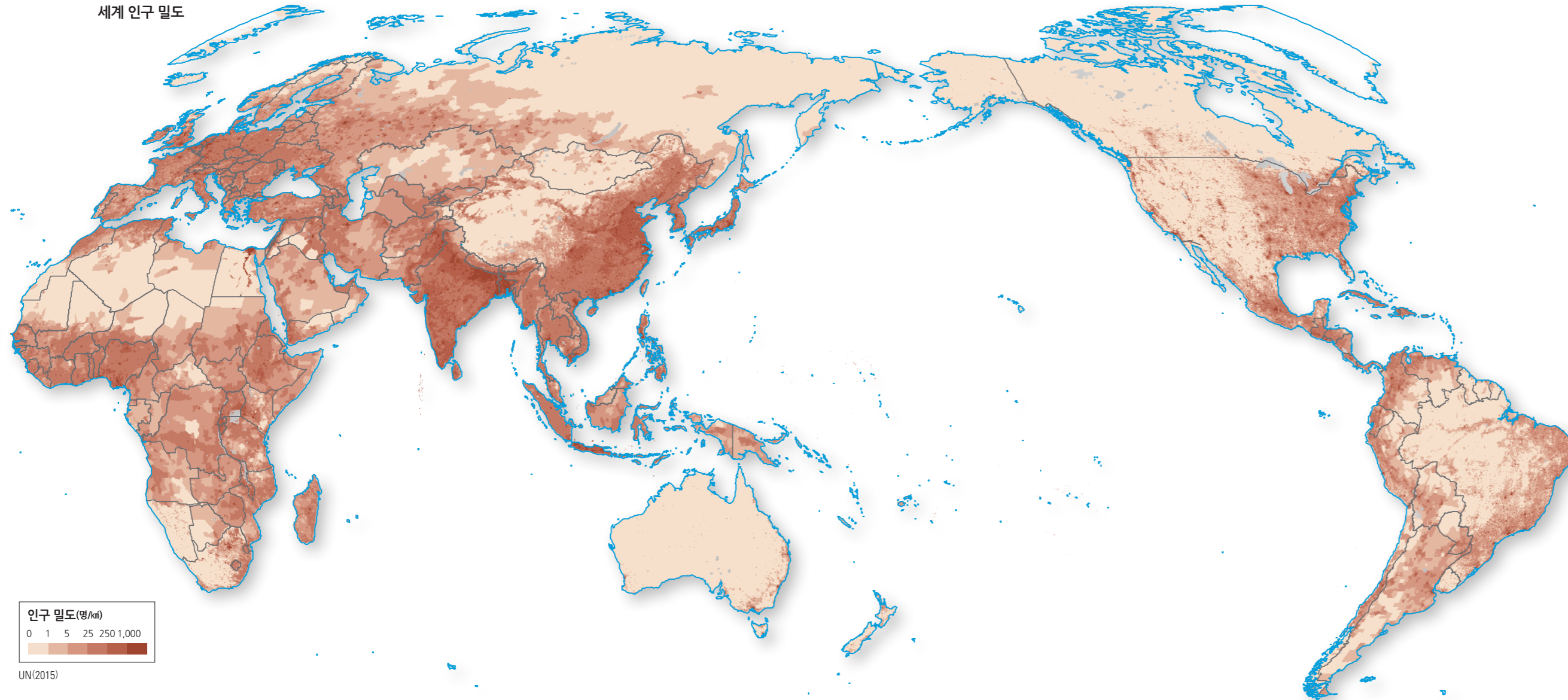
인구

세계에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남반구보다는 북반구, 북반구에서는 북위 20도에서 60도 사이, 해안과 하천 유역이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같이 농경 문화가 발달한 곳과 근대 산업이 발달한 서유럽에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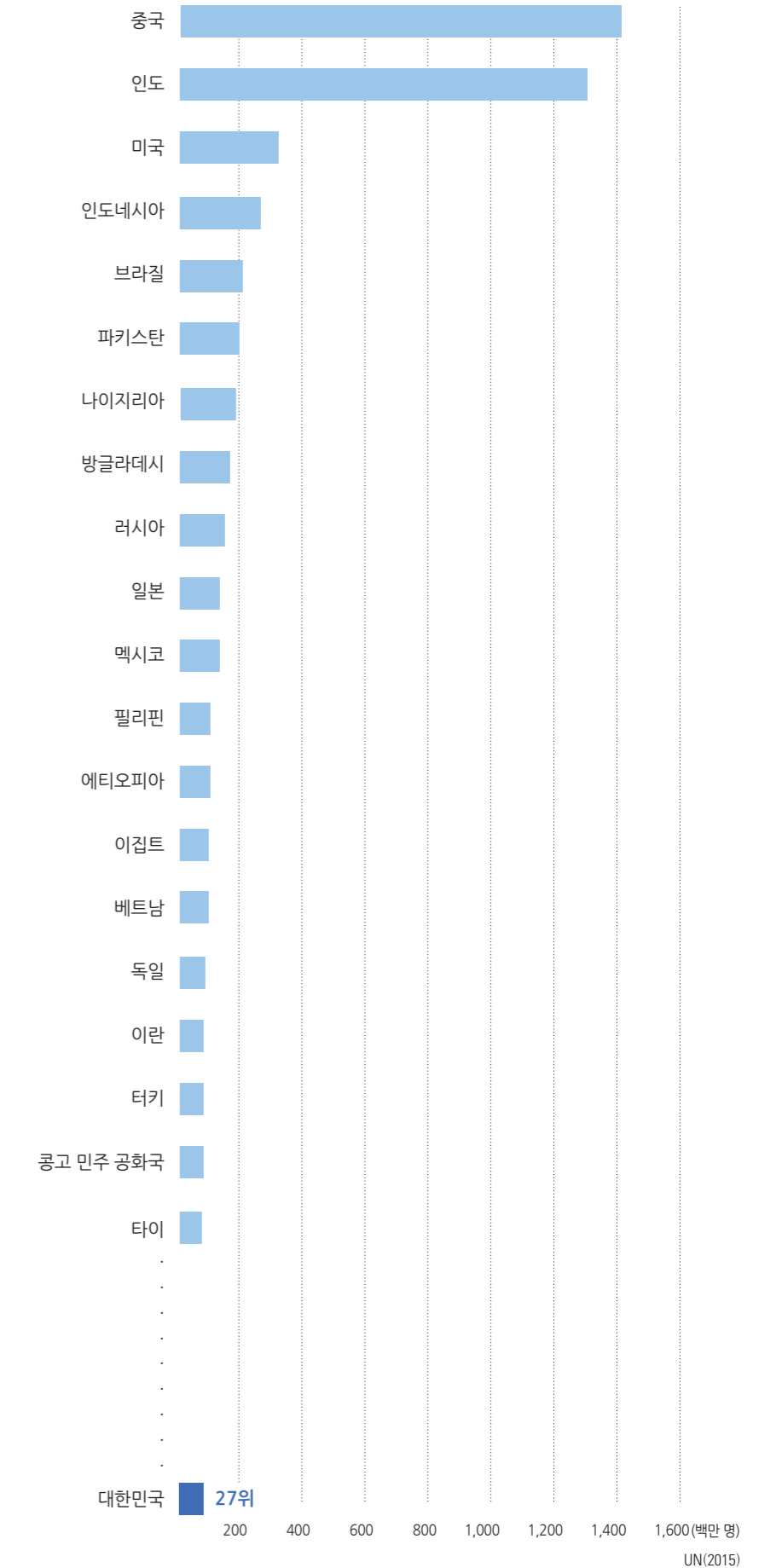
다.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해 있고, 농경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국토의 면적은 좁지만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2%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과도 관련 있는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현재 1.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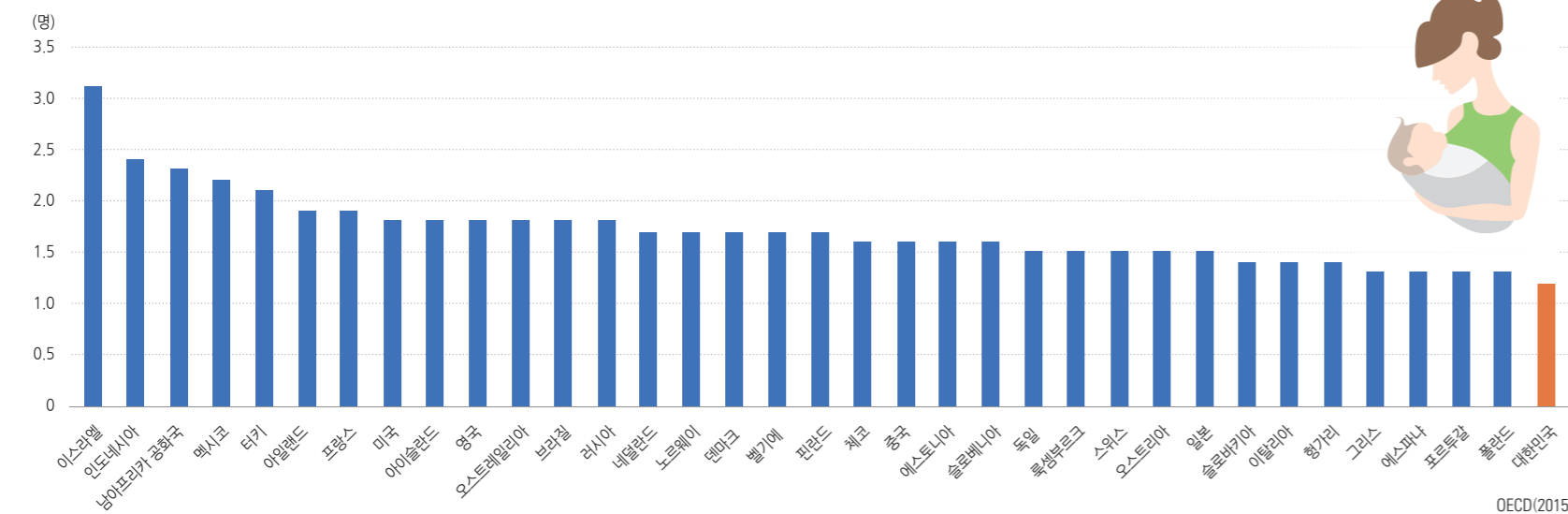
세계 인구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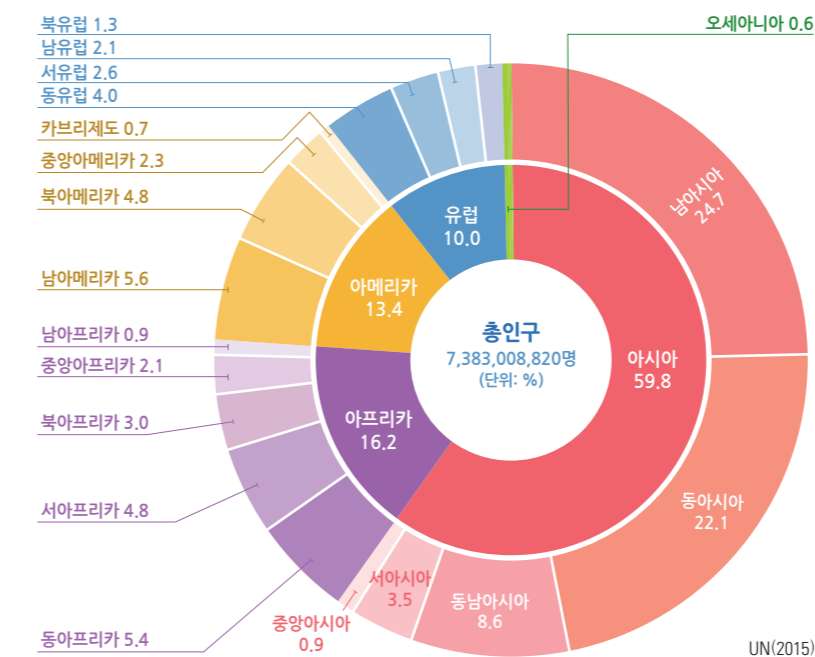
세계 인구 순위



OECD 합계 출산율(2015)



세계 인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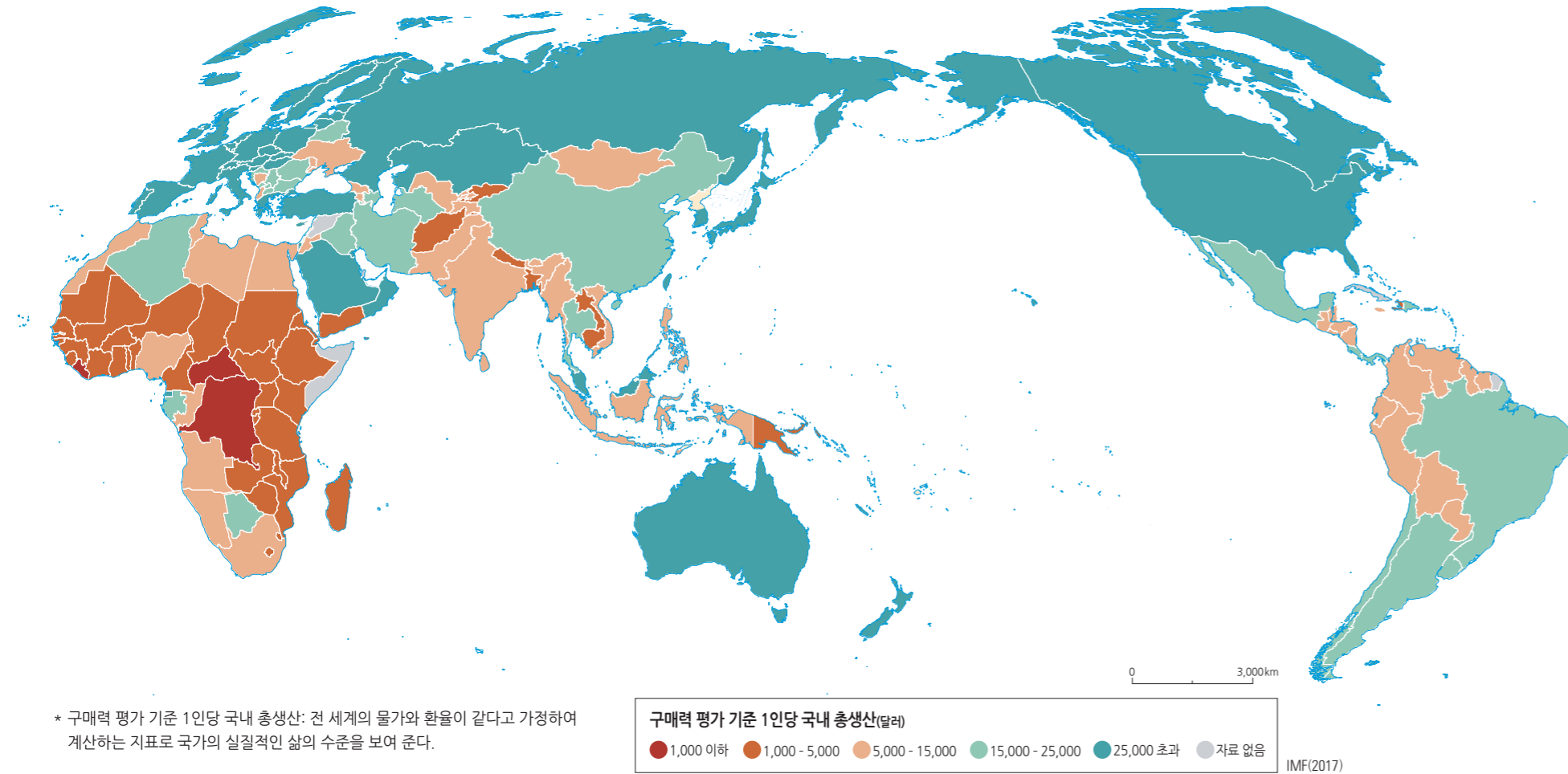
경제

1인당 국민 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말한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포함되지만 국내 총생산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80년에 1,686달러였지만 2016년에 27,561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에 비해 600% 이상 성장한 것이며, 같은 기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6·25 전쟁 이후 이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많은 개발 도상국의 모델

이 되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은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을 시행한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며, 2016년에는 대한민국의 세계 무역 규모 순위는 7위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무역 의존도는 1960년대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해 온 이래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 중·후반까지 40%대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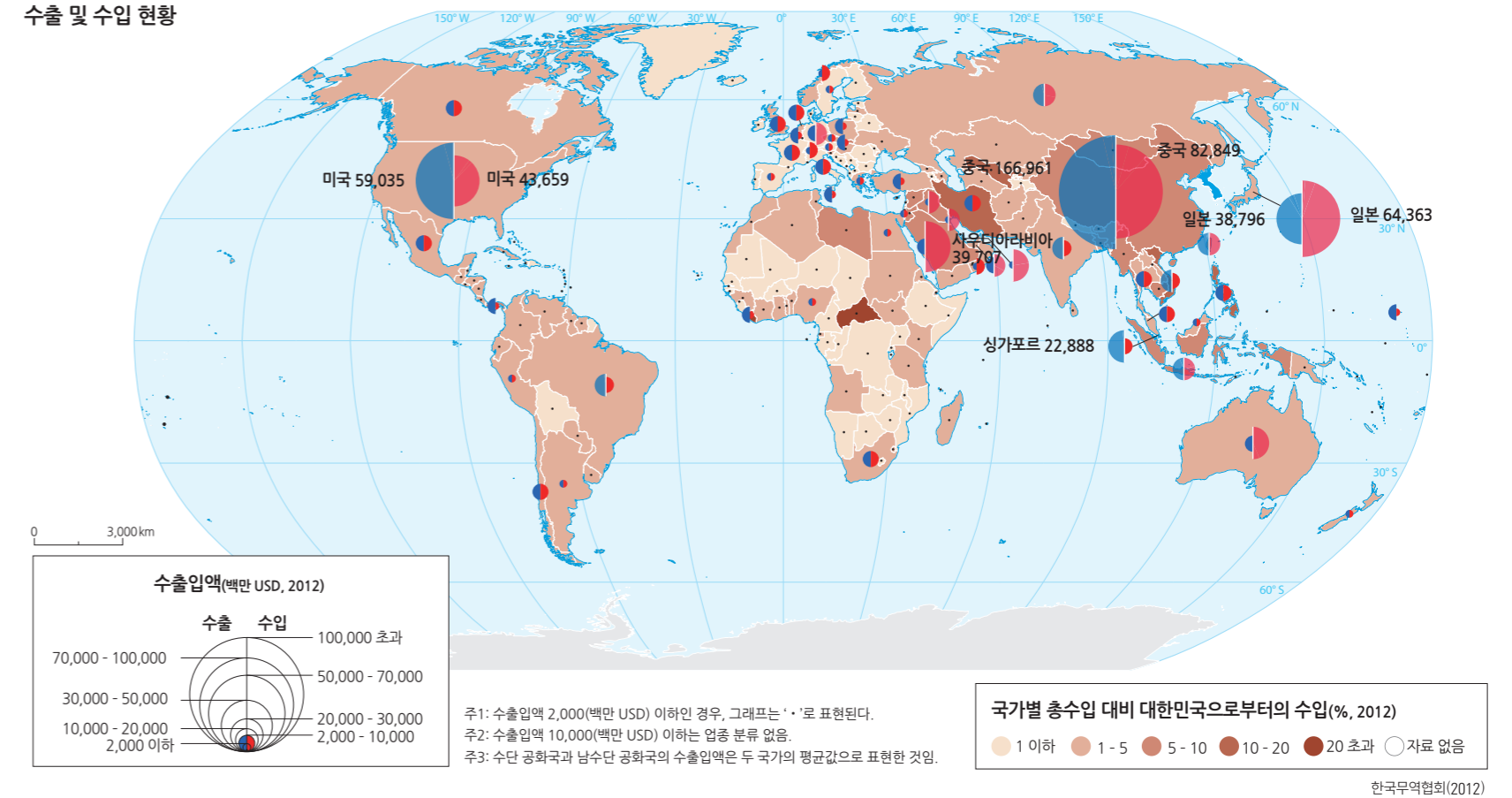
지하다가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05년에 60.1%를 기록하였다. 이어 2008년에는 85%를 넘어섰으며, 2016년에는 6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증가에는 다른 국가와의 경제 통합도 한몫하고 있다. 경제 통합은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 자유 무역 협정(FTA)부터 유럽 연합(EU)과 같은 단일 시장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칠레, 유럽 연합(EU), 미국 등 52개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를 체결하여 발효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 해양 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이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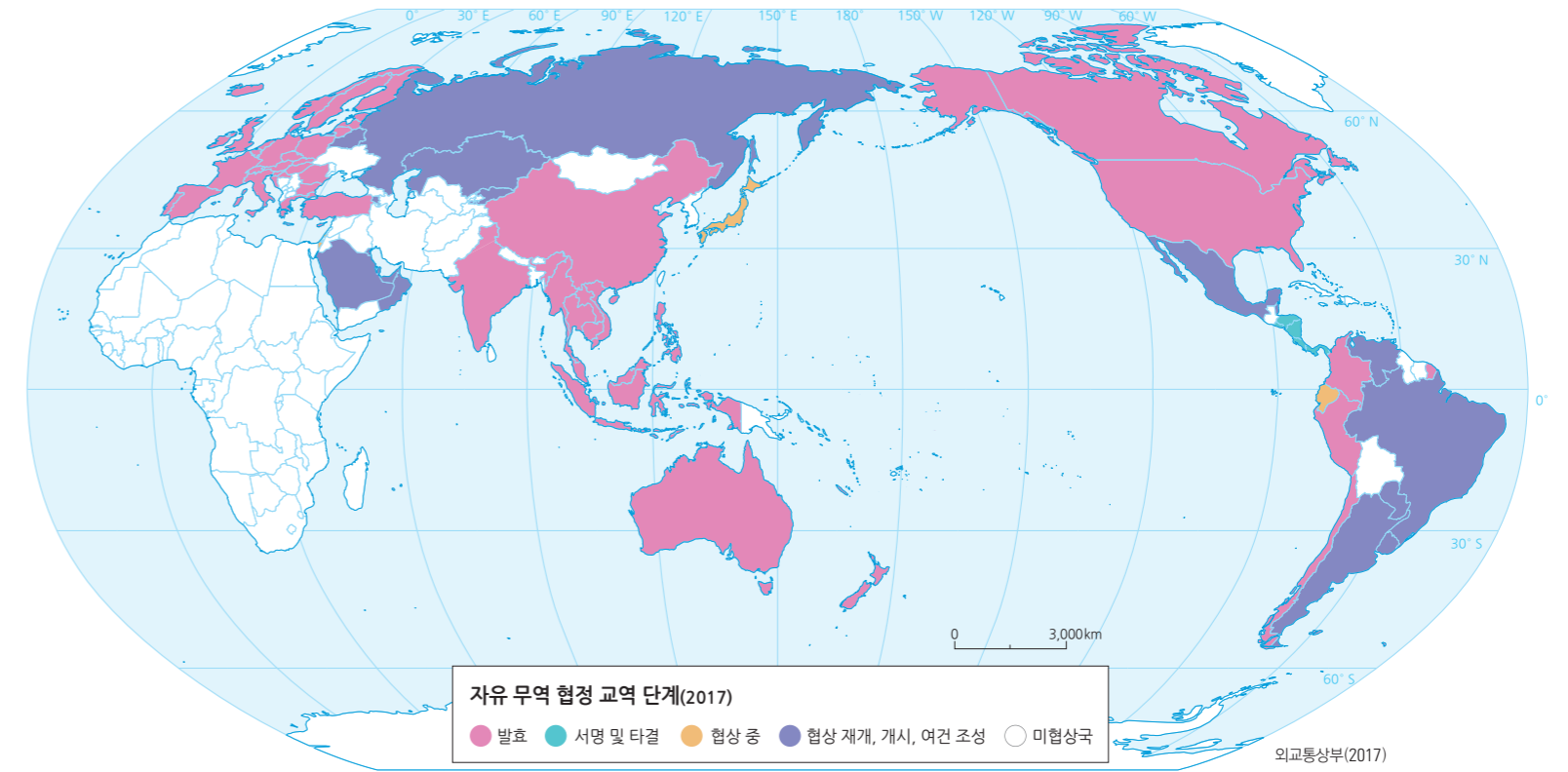


*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전 세계의 물가와 환율이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는 지표로 국가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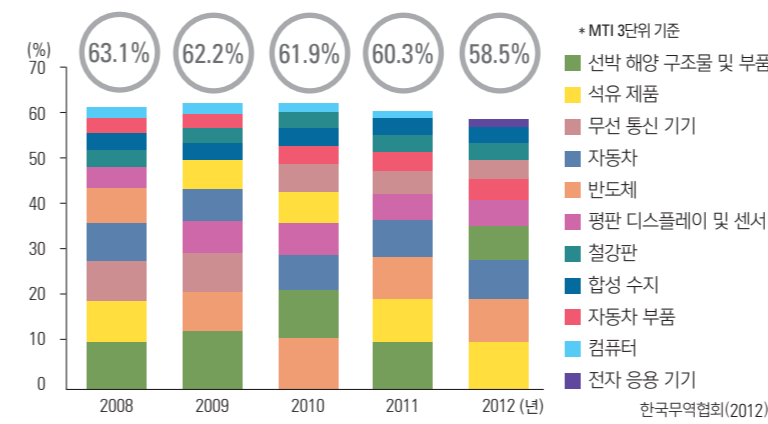
수출 및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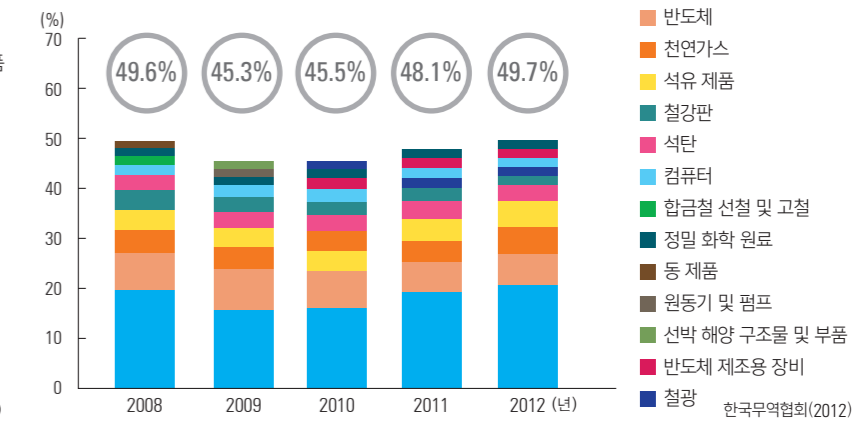
자유 무역 협정(FTA) 현황



주요 품목의 수출 비중 추이



주요 품목의 수입 비중 추이





국제 교류

사람, 물자, 정보 등의 국경 간 이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들이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장이 국제기구이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 연합(UN)이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만국 우편 연합(UPU), 세계 보건 기구(WHO) 등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제56차 유엔 총회 의장을 수임한 데 이어 2007년에는 반기문 장관이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높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울 4개, 인천 1개, 부산 1개 등

총 6개의 국제기구 본부 및 사무국을 두고, 이외에 약 20여 개의 국제기구 관련 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한 몇 안 되는 국가로 많은 개발 대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및 6·25 전쟁 이후 장기간 국제 사회로부터 각종 원조를 받았다. 그 후 경제 성장에 이루어지면서 원조 수혜 규모가 점점 감소하다 1995년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의

차관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고, 유엔 개발 계획(UNDP)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순기여 국가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원조 공여는 1980년대 후반 유엔 개발 계획, 유엔 공업 개발 기구, 유엔 식량 농업 기구 등을 통해 개발 대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91년에는 외무부 산하에 한국 국제 협력단(KOICA)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조는 공적 개발 원조(ODA)를 통한 양자간 원조와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기금 지원 및 활동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 및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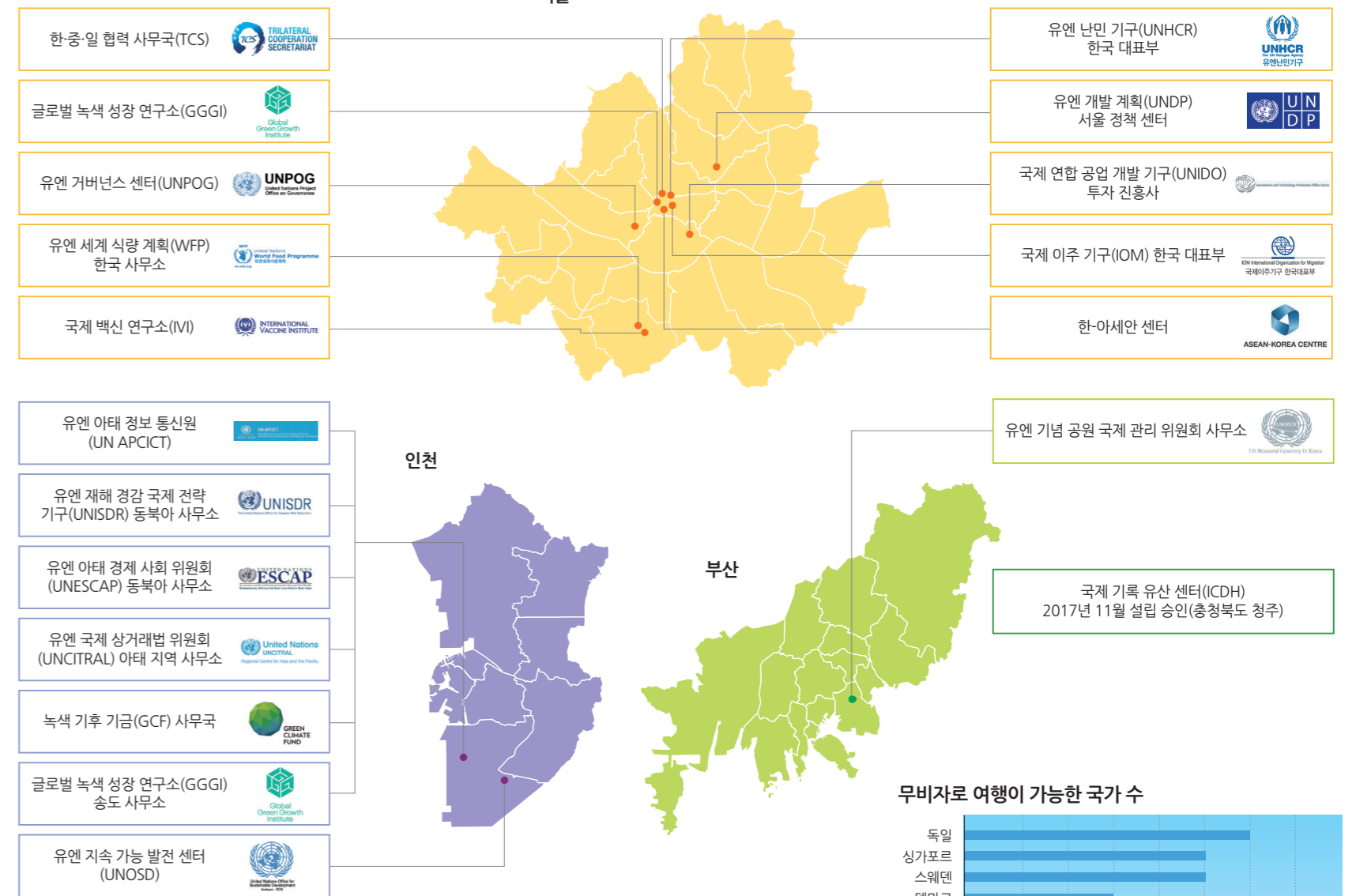
기구명	소재 도시	대한민국 가입 연도	기구명	소재 도시	대한민국 가입 연도	기구명	소재 도시	대한민국 가입 연도
국제 연합(UN)	뉴욕	1991	국제 원자력 기구(IAEA)	빈	1957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	제네바	1952
국제 해사 기구(IMO)	런던	1962	유엔 중남미 카리브 경제 위원회(ECLAC)	산티아고	2007	세계 기상 기구(WMO)	제네바	1956
유엔 식량 농업 기구(FAO)	로마	1949	국제 통화 기금(IMF)	워싱턴 D.C.	1955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제네바	1979
국제 농업 개발 기구(IFAD)	로마	1978	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	워싱턴 D.C.	1955	국제 노동 기구(ILO)	제네바	1991
세계 관광 기구(WWTTO)	마드리드	1975	국제 개발 협회(IDA)	워싱턴 D.C.	1961	세계 무역 기구(WTO)	제네바	1995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몬트리올	1952	국제 금융 공사(IFC)	워싱턴 D.C.	1964	제네바 군축 회의(CD)	제네바	1996
유엔 아태 경제 사회 위원회(UNESCAP)	방콕	1954	국제 투자 보증 기구(MIGA)	워싱턴 D.C.	1988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제네바	1965
만국 우편 연합(UPU)	베른	1949	국제 투자 분쟁 해결 분부(CSID)	워싱턴 D.C.	1967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파리	1950
유엔 공업 개발 기구(UNIDO)	빈	1967	세계 보건 기구(WHO)	제네바	1949			

정부 간 기구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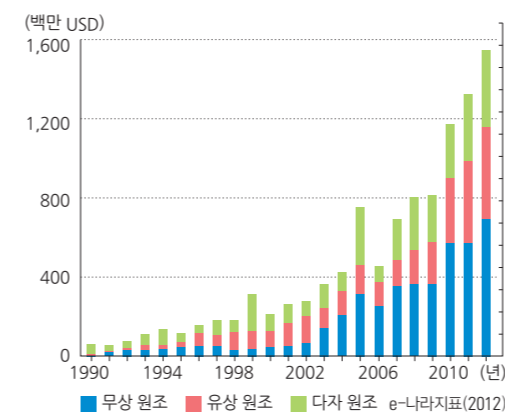
기구명	소재 도시	대한민국 가입 연도	기구명	소재 도시	대한민국 가입 연도	기구명	소재 도시	대한민국 가입 연도
유럽 부흥 개발 은행(EBRD)	런던	1990	국제 법적 계약 기구(OIML)	파리	1978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GGGI)	서울	2012
국제 이동 위성 기구(IMSO)	런던	1985	국제 도량형국(BWM)	파리	1959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IRENA)	아부다비	2011
국제 유류 오염 보상 기금(IOPC Funds)	런던	1998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파리	1996	아프리카 개발 기금(AfDF)	아비장	1980
FAO/WHO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CAC)	로마	1970	아시아-아프리카 법률 자문 기구(AALCO)	뉴델리	1974	아프리카 개발 은행(AfDB)	아비장	1982
국제 문화재 보존 복구 연구 센터(ICCR)	로마	1968	아프리카-아시아 농촌 개발 기구(AARDO)	뉴델리	1963	중동 대서양 수산 위원회(CECAF)	아크라	1968
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ICCAT)	마드리드	1970	아시아 생산성 기구(APO)	도쿄	1961	남동 대서양 수산 기구(SEAFO)	월비스베이	2011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물 보호 위원회(APPPC)	마드리드	1981	국제 남-아연 연구 그룹(ILZSG)	리스본	1987	남태평양 지역 수산 관리 기구(SPRFMO)	웰링턴	2012
아시아태평양 전기 통신 협의회(APT)	방콕	1979	아시아 개발 은행(ADB)	마닐라	1966	동남아 뉴질랜드 호추 중앙 은행 기구(SEANZA)	캔버라	1966
아시아-태평양 수산 위원회(APFIC)	방콕	1950	동부 지역 공공 행정 기구(EROPA)	마닐라	1962	남방 참다랑어 보존 위원회(CCSBT)	캔버라	2001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CTBTO)	빈	1996	국제 수로 기구(IHO)	모나코	1957	국제 포경 위원회(IWC)	케임브리지	1978
지구 환경 금융(GEF)	워싱턴 D.C.	1994	국제 결제 은행(BIS)	바젤	1997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콜롬보	1962
국제 연화 자원 위원회(ICAC)	워싱턴 D.C.	1954	금융 안전 위원회(FSB)	바젤	2009	동남아 중앙 은행 기구(SEACEN)	쿠알라룸푸르	1990
국제 전기 통신 위성 기구(INTELSAT)	워싱턴 D.C.	1967	비핵 은행 감독 위원회(BCBS)	바젤	2009	아시아 태평양 개발 센터(APDC)	쿠알라룸푸르	1982
국제 무역 센터(ITC)	제네바	1964	중부 배령해 연대 지원 보전 협약(CBSPC)	밴쿠버	1995	아시아 체소 연구 개발 센터(AVRDC)	타이난	1971
국제 의회 연맹(UPU)	제네바	1964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NPAFC)	밴쿠버	2003	아태 식량 비료 기술 센터(FFTC)	타이베이	1970
국제 교육국(IBE)	제네바	1962	유엔 기념 공원(UNMCK)	부산	1959	화학 무기 금지 기구(OPCW)	헤이그	1997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제네바	1963	세계 관세 기구(WCO)	브뤼셀	1968	남극 해양 생물 자원 보존 위원회(CCAMLR)	호버트	1985
상품 공동 기금(CFC)	제네바	1982	인도양 참치 위원회(IOTC)	빅토리아	1996	중서 대서양 수산 위원회(WECAFC)	비베이도스	1974
섬유 수출 개도국 기구(ITCB)	제네바	1984	국제 백신 연구소(IVI)	서울	1997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싱가포르	1989

외교부(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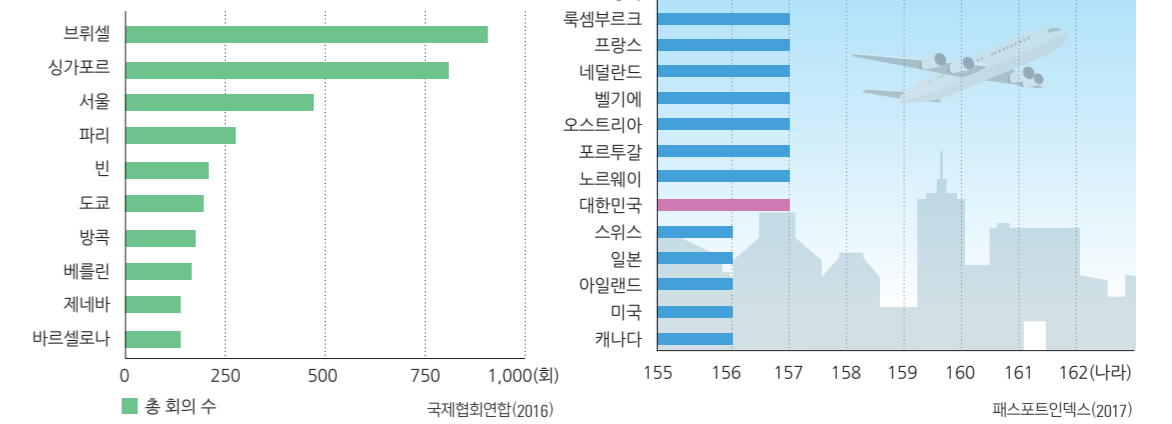
국제기구 유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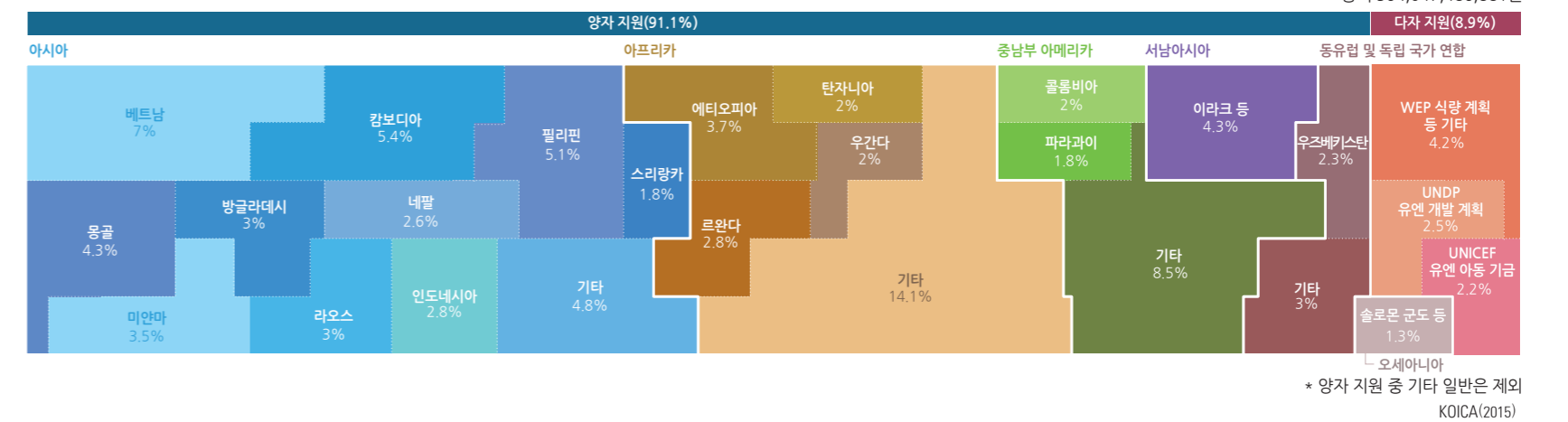
유형별 ODA 추이



국제회의 개최 도시 순위



국가별·기구별 해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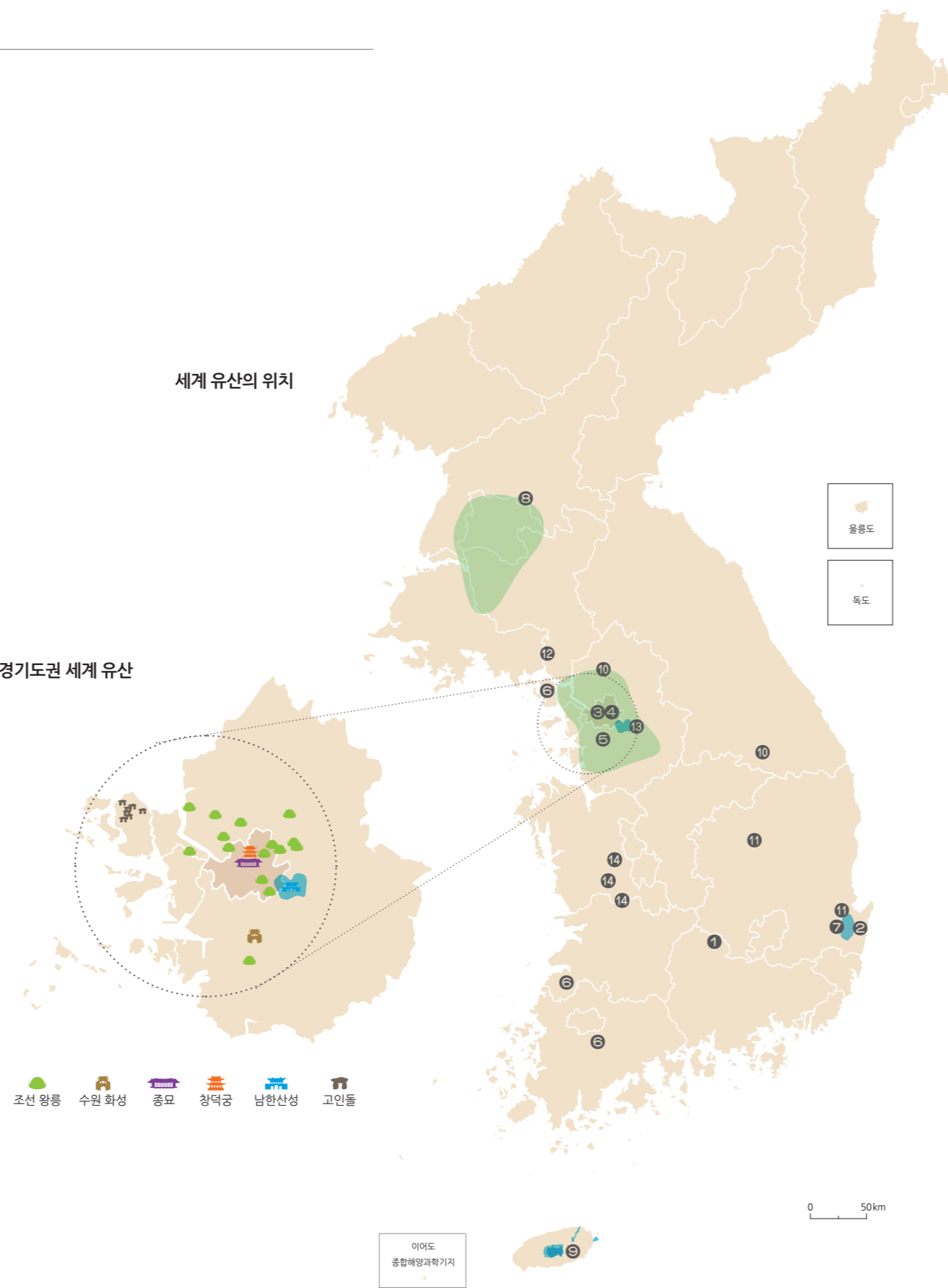




세계 유산

세계 유산의 위치

경기도권 세계 유산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사물 또는 문화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발굴하고 보호·보존하기 위해,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 1992년 '세계의 기억(세계 기록 유산)' 사업, 2003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현재 14건의 세계 유산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13건, 자연 유산이 1건이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는 종묘 및 종묘 제례악 등 2건,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조선왕조실록 등 16건이 등재되어 있다.



1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등재, 장경판전 외관)

경상남도 함천군 소재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판 8만여 장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원활한 통풍과 방습, 실내 적정 온도 유지, 판가의 진열 장치 등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고려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2 석굴암과 불국사 (1995년 등재, 불국사)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불국사는 토함산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의 석굴암과 쌍을 이루고 있으며, 신라 고도인 경주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적 열정, 예술혼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기념비적인 사원이다.



3 종묘 (1995년 등재, 종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종묘는 조선 시대 왕가의 조상을 모시는 유교 사당이다. 건축물 배치 원리에 따라 좌청룡에 해당하는 궁궐의 동쪽에 세워졌다. 부속 건축물로는 영녕전, 공신당, 철사당 등이 있다.



4 창덕궁 (1997년 등재, 인경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창덕궁은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에 중건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5년(1613)에 재건하였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 정궁으로 사용한 후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피는 법궁이었다.



5 수원 화성 (1997년 등재, 화서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 화성은 정조 때 축성된 평산성이다. 도성 남쪽을 방어하는 기능과 함께 성내의 행궁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양 철학과 서양 건축 기술이 반영된 대표적 성곽이다.



12 개성 역사 유적 지구 (2013년 등재, 왕건릉)

황해도 개성시 소재
개성 역사 유적 지구는 고려 시대의 수도인 개성의 역사적 유적지이다. 이곳에는 개성 성곽, 개성 남대문, 개성 첨성대, 만월대, 고려 성균관, 숭양 서원, 선교교, 표충사 및 왕건릉, 공민왕릉, 명릉 등 7개의 능이 분포하고 있다.



13 남한산성 (2014년 등재, 성략남문)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남한산성은 조선 시대의 왕도를 동쪽에서 방위하던 산성이다. 높고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고 있어 방어에 유리하다. 병자호란 때 청군의 주력 부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다.



14 백제 역사 유적 지구 (2015년 등재, 공산성)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백제의 유적은 중국, 일본 등 이웃한 지역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고대 백제 왕국의 후기 시대를 대표한다. 백제 역사 유적은 중국의 도시 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한 증거를 보여 주며,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룩한 세련된 백제의 문화를 일본 및 동아시아로 전파한 사실을 증언한다.



6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년 등재, 고창 고인돌)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인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고인돌은 선사 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정치 체계는 물론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 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7 경주 역사 유적 지구 (2000년 등재, 안압지동굴)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곳은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 지구, 천년 왕조의 궁궐터인 월성 지구, 신라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 지역인 대동원 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인 황룡사 지구, 왕경 방어 시설의 핵심인 산성 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8 고구려 고분군 (2004년 등재, 동명왕릉)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소재
고구려 고분군은 고구려 시대의 무덤군이다. 63기의 무덤이 대동강 하류 양안의 넓은 범위에 걸쳐 8개 고분군을 이루고 있다. 무덤의 양식이나 내부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



9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2007년 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 화산성과 용암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손꼽히는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김녕굴, 만장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병뒤굴), 바다에서 솟아올라 극적인 장관을 연출하는 오세 모양의 성산 일출봉 응회구 그리고 폭포와 다양한 모양의 암석, 수많은 오름 등이 있는 한라산의 세 구역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특성과 발전 과정 등 지구의 역사를 잘 보여 준다.



10 조선 왕릉 (2009년 등재, 동구릉 중 건원릉)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소재
조선 왕릉은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서울 시내(경릉-현인릉-선정릉-태강릉-의릉), 서울 동쪽(동구릉-홍유릉-광릉-사릉-영녕릉), 서울 서쪽(서오릉-서삼릉-은릉-파주 삼릉-파주 장릉-김포 장릉-용인릉), 강원도 영월(장릉)에 나뉘어 있다.



11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양동 (2010년 등재, 하회 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소재
14~15세기에 조성된 하회 마을과 양동 마을은 한국을 대표하는 씨족 마을이다. 조선 초기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의 입지와 배치가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 양반 문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낙동강이 'S' 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된 하회 마을은 풍산 류씨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으며 양반과 서민의 생활이 공존하고 있다.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의 두 가문에 의해 형성된 양동 마을은 수백 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돌담길이 아름답다.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



1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2001년 등재)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은 종묘에서 이루어지는 제향 의식과 제사를 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 노래, 춤을 말한다.



2 판소리(2003년 등재)

판소리는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창, 말, 몸짓을 섞어 가며 구연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악이다.



3 강릉 단오제(2005년 등재)

단오 전후에 강원도 강릉 지방에서 행하는 마을굿이다. 풍년을 빌고 재앙을 쫓기 위해 서낭신에게 굿을 올리며 각종 민속놀이도 한다.



4 강강술래(2009년 등재)

정월 대보름날이나 팔월 한가위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로,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5 남사당놀이(2009년 등재)

남사당놀이는 남사당패가 농촌을 돌며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기를 하는 놀이를 말한다.



6 영산재(2009년 등재)

영산재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불교에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년 등재)

제주 칠머리당에서 해녀들이 영등 할머니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8 처용무(2009년 등재)

처용무는 액운을 쫓기 위한 의식으로, 궁중 무용에서 처용탈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9 가곡(2010년 등재)

가곡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음악이다.



10 대목장(2010년 등재)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목장, 목공, 목수라 한다. 또한 궁궐, 사찰, 가옥을 짓고 건축과 관계된 일을 대목(大木)이라 불렀고,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이라 한다.



11 매사냥(2010년 등재)

매사냥은 훈련된 매를 이용하여 꿩이나 작은 짐승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12 줄타기(2011년 등재)

줄광대나 줄꾼이 줄 위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이는 놀이이다.



13 백견(2011년 등재)

유연한 동작으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이다.



14 한산 모시짜기(2011년 등재)

충남 한산 지역에서 모시풀을 재료로 삼아 직물을 짜는 일을 말한다.



15 아리랑(2012년 등재)
16 아리랑 민요(북한)(2014년 등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남한에서는 정선과 진도 아리랑이 유명하고, 북한에서는 평양을 위시한 전역에 구전 아리랑이 존재한다.



16 김장 문화(2013년 등재)
20 김치 담그기 전통(북한)(2015년 등재)

김장은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또는 그렇게 담근 김치를 말한다. 김치 담그기는 한민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음식 전통 중 하나이다. 겨울 한 철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만드는 김장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김치 담그기의 노후와 재료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가족과 마을, 공동체 사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이들 집단의 사회적 결속을 돈독하게 한다.



17 농악(2014년 등재)

농악은 집단 농사일을 할 때나 명절에 흥을 돋우기 위한, 악기가 곁들여진 춤과 노래이다.



18 줄다리기(2015년 등재)

대한민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줄다리기는 풍농을 기원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에서 널리 볼 수 있다. 결속과 연대감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경 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행사이다.



19 제주 해녀 문화(2016년 등재)

제주 해녀 문화는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이다. 또한 '제주 해녀 문화'는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 왔고, 생태 친화적인 어로 활동과 공동체에 의한 어업 관리는 친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




1 훈민정음(1997년 등재)

국보 제70호, 서울특별시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 낸 판각 원본이다. 글자를 만든 원리가 과학적이고, 배우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문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2 조선왕조실록(1997년 등재)

국보 제15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방면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 동서양의 정세와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직지심체요절(2001년 등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백운화상이 석가모니의 직지인심견성성불의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만 뽑아 해설한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인쇄되었다. 1972년 유네스코 주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되었다.



4 승정원일기(2001년 등재)

국보 제30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승정원은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다. 1623년부터 1910년까지 승정원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주요 사료로 활용되었다.



5 조선왕조의궤(2007년 등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 행사의 주요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 내고 있는 보고서이다. 조선 시대 600년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誦)경판(2007년 등재)

국보 제32호, 합천군 해인사 소장
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킨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 시대에 간행되어 '고려 대장경'이라고도 하며, 대장경 판수가 8만 여 개에 이르러 '말판 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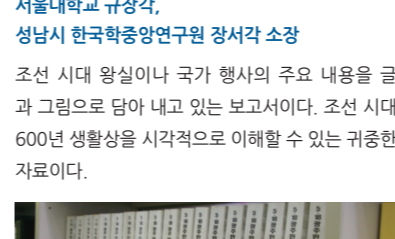
7 동의보감(2009년 등재)

보물 제1085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조의 명을 받아 어의 허준(1539~1615)이 집필하여 1610년(광해군 3)에 완성하고 1613년에 간행한 의학 책이다. 일반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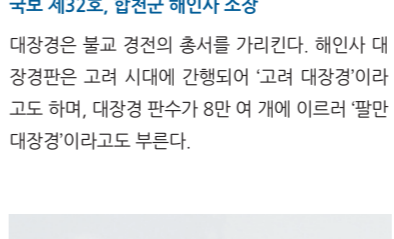
8 일성록(2011년 등재)

국보 제15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에서 1910년(융희 4)까지 151년 동안 국정 운영 내용을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펴낸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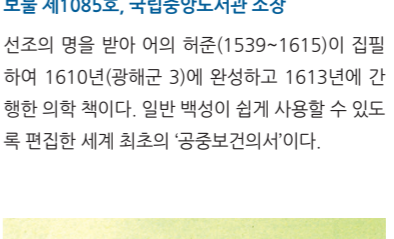
9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2011년 등재)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5·18 기념재단, 광주광역시청 소장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국회, 시민, 단체,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기록물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기록물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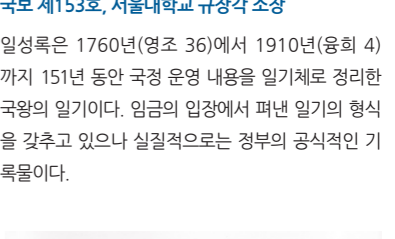
10 난중일기(2013년 등재)

국보 제76호, 현충사 소장
난중일기는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1592~1598) 기간 중에 군중에서 직접 쓴 친필 일기이다. 모두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시작부터 이순신이 노랑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년의 기간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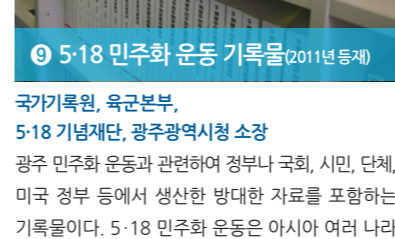
11 새마을 운동 기록물(2013년 등재)

국가기록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장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 연설문과 결재 문서, 사진, 영상 등 약 22,000여 건의 자료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발전의 한 모델이자 민관 협력의 성공적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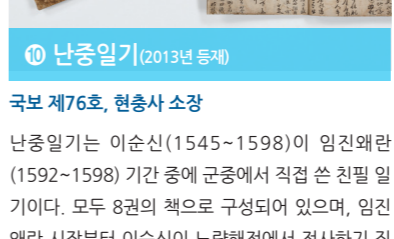
12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등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은 조선 시대에 718종의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종과 서예에서 기탁한 총 64,226장으로 되어 있다. 유교책판이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모두 지식인 계층의 여론에 의해 제작된 공,공동체 출판 방식으로 제작된 점, 550년 동안 지속된 집단 지식의 결과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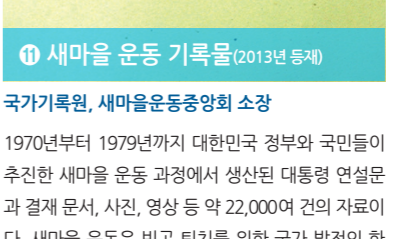
13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년 등재)

한국방송공사(KBS), 국가기록원, 한국궐림조사연구소 소장
KBS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방송한 내용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이 방송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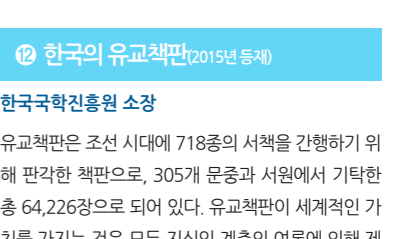
14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등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보와 어책은 금·은·옥에 아름다운 명칭을 새긴 어보, 오색 비단에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 주는 글을 쓴 교령, 아름다운 명칭을 수여하는 글을 새긴 옥책과 축책, 금동판에 책봉하는 내용을 새긴 금책 등이다. 이들은 현재의 왕에게는 정통성을, 사후에는 권위를 보장하는 성물로 숭배되었다.



15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2017년 등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소장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 에도 막부의 초청으로 12회에 걸쳐,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외교사절단에 관한 외교, 여경, 문화 교류 자료들이다. 평화 공존과 타 문화를 존중하는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16 국제보상운동 기록물(2017년 등재)

한국금융사박물관 등 소장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은 피식민지 국가에게 엄청난 규모의 빚을 지우고 그것을 빌미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동원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 외채로 인한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국제보상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외채로 시달리는 다른 피식민지국에 큰 자극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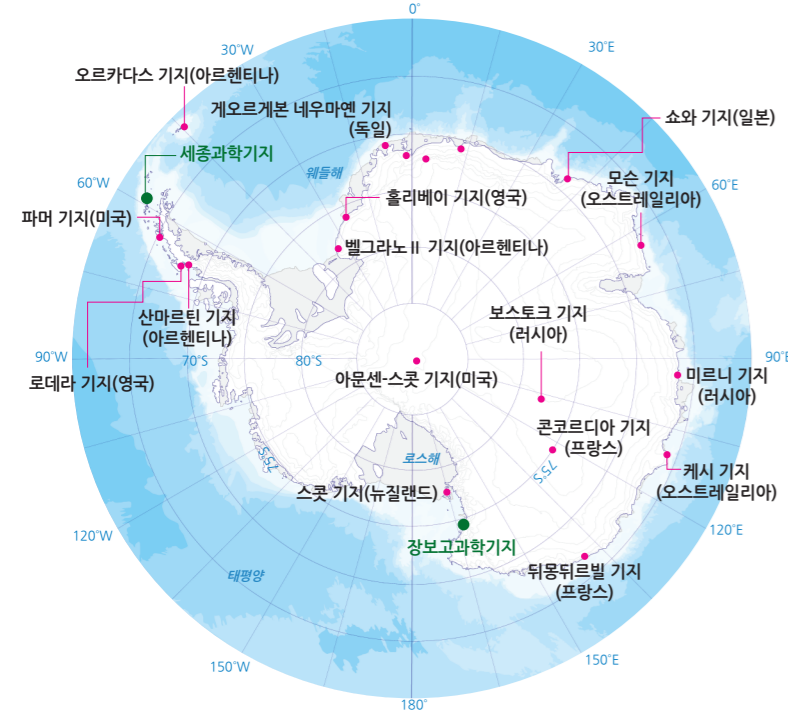
연구와 탐험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와 탐험은 1988년 남극 킹조지섬 세종과학기지 건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이후 대한민국은 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대기과 지질, 해양, 생물, 기후 변화, 고환경 등 다양한 연구와 탐험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하여 남극점에 보다 가까운 남극 대륙으로 연구와 탐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09년부터 기지와 기지 주변의 측량 및 지도 제작을 수행하며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인수봉, 아우라지 등 총 27개의 남극 고유 지명을 남극 지명 사전에 등록하였다. 북극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남극과 북극에 모두 과학 기지

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극지 연구용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건조되어 항해를 시작하였다. 아라온호는 남북극 결빙 해역에서의 독자적인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항로를 개척하며, 남북극 과학기지에 대한 보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국의 남극 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아라온호 남극 항해 경로



아라온호 북극 항해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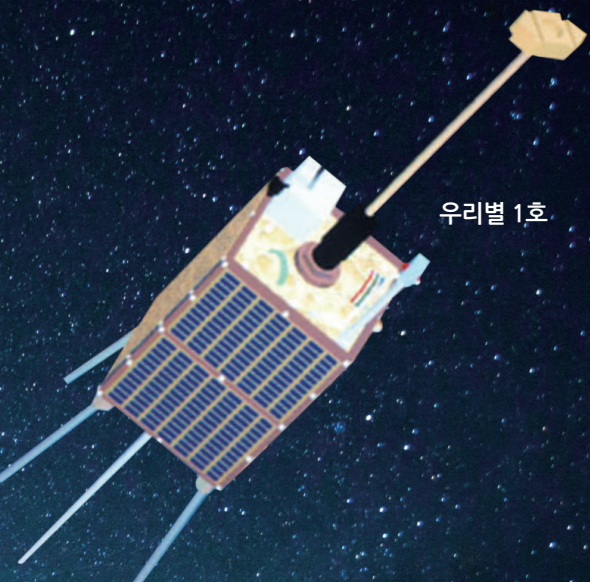


아라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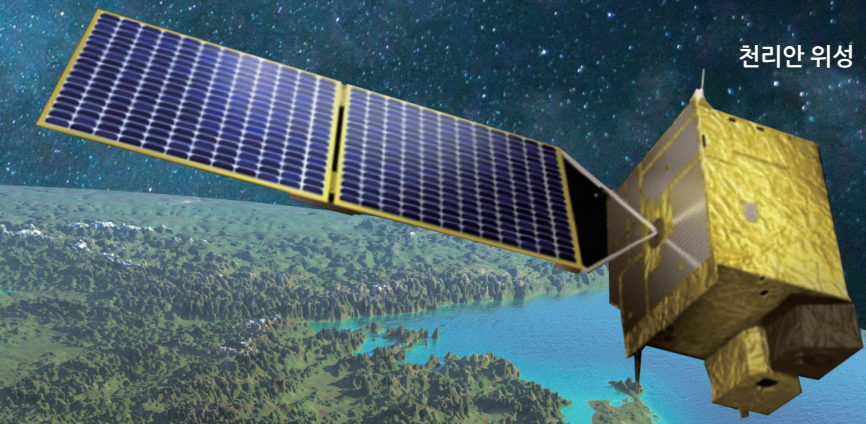


우주 개발은 위성 부분과 우주 발사체(로켓)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주 개발은 1992년 8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 위성 우리별 1호가 남아메리카의 기아나에서 발사되면서부터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위성을 보유한 22번째 나라가 되었다. 그 후 통신 위성인 무궁화,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통신 해양 기상 위성인 천리안까지 쏘아 올렸다. 특히 천리안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의 정지 궤도 해양 관측 위성 보유국 이자, 미국·중국·일본·유럽 연합·인도·러시

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기상 관측 위성 보유 국이 되었다. 우주 발사체(로켓) 부문에서는 2013년 1월 '나로호(KSLV-1)'를 전라남도 고흥군 외남로도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하였다. 우리나라는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로켓을 만든 나라를 일컫는 스페이스 클럽에 11 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2008년 4월에는 이소연이 한국인 최초로 우주를 다녀오면서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별 1호



천리안 위성

